

2021년 오리산업전망

생산량 감소로 가격 올라

올해 오리 사육 마릿수 감소로 오리고기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오리고기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지속 발생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농경연은 올해 평균 오리 사육 마릿수는 종오리 입식 마릿수 감소로 지난해 대비 7.8% 감소한 793만7000마리로 전망했다. 특히 육용오리 사육 마릿수는 종오리 입식 감소와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지난해 대비 7.3% 감소한 723만7000마리로 전망됐다.

오리 사육 마릿수 감소로 올해 오리고기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6.5% 감소한 10만5000톤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오리 생산량 감소로 올해 오리 산지가격은 지난해 대비 13.2% 상승한 생체 3.5kg당 6345원으로 전망된다.



종오리 입식 마릿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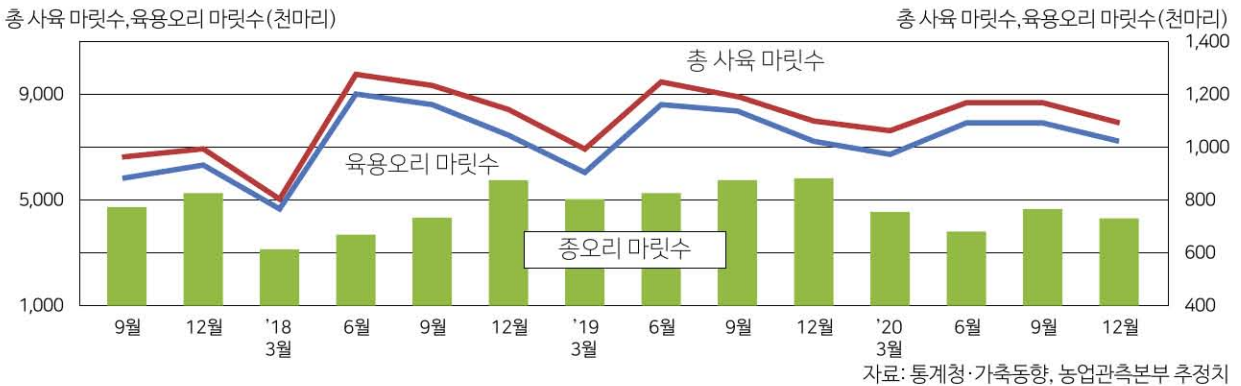


오리 사육 동향

2020년 평균 오리 사육 마릿수는 공급 과잉에 따른 종오리 사육 마릿수 감소로 전년(895만 마리) 및 평년(899만 마리) 대비 각각 4.7%, 5.1% 감소한 853만 마리였다.

종오리는 72만 5,000마리로 전년(84만 6,000마리) 및 평년(77만 2,000마리) 대비 각각 14.6%, 6.1% 감소했다. 육용오리 사육 마릿수는 종오리 사육 마릿수 감소 및 사육제한 규모 확대로 전년(821만 7,000마리) 및 평년(835만 1,000마리) 대비 각각 5.0%, 6.5% 감소한 780만 9,000마리였다.

오리 사육마릿수



오리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구분	단위	2020	전망		
			2021	2025	2030
사육 마릿수	만마리	853	794	811	846
생산	천 톤	112	105	107	110
수입	천 톤	4.3	4.9	5.7	6.6
1인당 소비가능량	kg	2.25	2.12	2.17	2.26
산지가격	원/생체3.5kg	5,603	6,345	6,752	6,984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2020)

오리고기 수급 전망



<2020/21년 오리 사육제한 추진 현황>

오리 사육제한은 HPAI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2017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과거 AI 발생농가 및 인접농가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4~5개월 동안 오리 사육을 제한하는 것이다.

2019/20년 오리 사육제한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시행되었으며, 2020/21년에도 전년과 동일한 기간(2020.11~2021.2)에 이어지고 있다.

2020/21년 오리 사육제한에 참여하는 농가수는 전년(207호) 대비 증가한 213호이며, 사육 제한 마릿수 또한 전년(301만 마리) 대비 10.7% 증가한 333만 마리로 전체 사육 마릿수의 35.8%를 차지한다.

오리 사육제한 추진 현황

(단위: 호, 천마리, %)

구분	2018/19		2019/20		2020/21	
	사육제한	비중	사육제한	비중	사육제한	비중
농가수	203	31.7	207	35.0	213	37.6
마릿수	2,997	29.7	3,006	31.0	3,329	35.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오리고기 수급 동향

2021년 도압 마릿수에 영향을 미치는 전년 하반기 종오리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15.3%, 평년 대비 5.8%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도압 마릿수는 고병원성 AI 발생과 전년 대비 종오리 사육 마릿수 감소로 전년 대비 8% 감소(평년 대비 10% 감소)한 6,262만 마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도압 마릿수는 2,897만 마리로 전년 대비 12.8%, 평년 대비 6.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하반기 도압 마릿수는 3,365만 마리로 전년 대비 0.3%, 평년 대비 4.6%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오리고기 수급 동향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p)	
공급(천 톤)	생산	118	119	89	114	117	112
	수입	3.1	3.3	3.5	5.2	5.9	4.3
	계	121	122	93	119	122	116
1인당 소비가능량(kg)	2.41	2.39	1.81	2.30	2.37	2.25	

자료: 한국오리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오리고기 산지가격 동향

2021년 오리 산지가격은 도압 마릿수 감소로 전년 대비 13.2%, 평년 대비 9.5% 상승한 6,345원/생체3.5kg으로 전망되며, 상반기는 도압 마릿수 감소 및 고병원성 AI 영향으로 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이후 도압 마릿수 회복에 따라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리고기 냉동재고량 추이

단위: 천마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9년	5,482	5,445	5,406	4,775	4,313	5,072	4,855	4,776	5,163	5,253	4,928	4,917
2020년	5,308	5,640	6,320	6,311	6,294	5,971	5,589	5,423	5,350	5,848	5,581	5,002

오리고기 산지가격 동향

생체가격(원/3.2kg)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오리고기 소비패턴

2020년 오리고기 소비량은 응답자 중 절반 이상(52.6%)이 2019년과 비슷하게 오리고기를 소비했다고 조사됐다. 전년보다 소비량을 줄인 응답자는 31.8%로 늘린 응답자(15.6%)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오리고기 소비 빈도

단위: 명, (%)

구분	가정 내 소비		외식 소비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0회	80 (12.8)	62 (11.6)	79 (12.8)	108 (20.3)
1~4회	362 (58.1)	303 (56.5)	433 (70.1)	345 (64.7)
5~8회	114 (18.3)	116 (21.6)	79 (12.8)	62 (11.6)
9~12회	35 (5.6)	25 (4.7)	13 (2.1)	11 (2.1)
12회 이상	32 (5.1)	30 (5.6)	14 (2.3)	7 (1.3)
합계	623 (100.0)	536 (100.0)	618 (100.0)	533 (100.0)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오리고기 구매를 전년보다 줄인 이유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외식 소비가 줄어서 (36.0%)’가 가장 많았고, ‘오리고기 판매 마켓이나 음식점이 주변에 많지 않아서 (17.8%)’, ‘조리 방식이 어려워서(15.6%)’, ‘가격이 비싸서(11.9%)’ 순이었다.

2020년에 오리고기 소비하는 빈도는 ‘1~4회’, ‘5~8회’ 순으로 많았으며, 2019 년보다 가정 내 소비는 증가한 반면 외식 소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주로 먹는 오리고기 메뉴는 가정 내의 경우 훈제오리(42.0%), 로스 등 오리구이(31.1%), 오리주물럭(15.7%) 순으로 많았고, 외식은 로스 등 오리구이 (31.7%), 훈제오리(24.8%), 오리주물럭(19.2%)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오리고기 소비 의향 조사 결과, 전년보다 소비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비중 은 19.1%로 늘리겠다고 응답한 비중(17.8%)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오리고기 소비 의향 조사 결과, 전년보다 소비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비중은 19.1%로 늘리겠다고 응답한 비중(17.8%)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리고기 소비를 줄이려는 이유는 ‘오리고기 판매 마켓이나 음식점이 주변에 많지 않아서(19.1%)’, ‘조리 방식이 어려워서(18.2%)’, ‘가격이 비싸서(14.4%)’ 순으로 나타났다.

오리고기 소비 시 불편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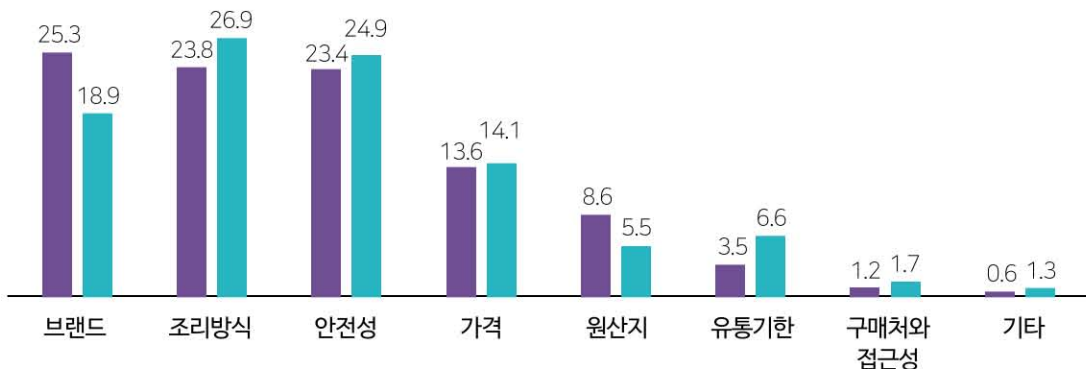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가정 내 소비	외식 소비
판매되는 오리고기의 크기가 적당하지 않음(너무 크거나 작음)	89(17.5)	33(6.7)
조리방법이 다양하지 않고, 관련 정보가 제한적임	348(68.4)	-
다른 육류에 비해 메뉴가 제한적임	-	216(43.7)
오리가격이 다른 육류에 비해 비쌈	48(9.4)	104(21.1)
오리고기 구입이 어려움	24(4.7)	-
오리고기 음식점이 주변에 많지 않음	-	141(28.5)
기타	-	-
합계	509(100.0)	494(100.0)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오리고기 구매 시 고려사항

단위: %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